

대기업 지방본사 시대 ‘활짝’

하림지주, 익산에 신사옥 건립... 계열사 입주 도시첨단물류단지 연결 식품물류 혁신 추진

농식품 전문기업 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주)하림지주가 익산에 건립한 신사옥에 입주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업 지방본사 시대를 열었다.

농식품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북에 신사옥을 마련한 하림지주는 농촌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업생산 기반과 농업 연구 개발(R&D) 인프라, 기업의 식품 생산 등이 집적된 지역특화 개발전략의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하림그룹은 곡물유통, 해운, 사료, 축산,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판매라는 식품의 가치사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푸드에그리비즈니스(Food & Agribiz) 기업으로 성장했고, 하림지주는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현장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 익산시 중앙로 121에 자리한 하림지주 신사옥은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6,031㎡(4,849평) 규모로 건축됐으며, 세련된 외관과 공공친화적 조경시설 등을 갖춰 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하림지주 신사옥에는 (주)하림의 사육 부문과 하림산업 등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현재 전북 익산 합영에 조성 중인 종합식품단지 '하림푸드 콤플렉스'의 한축을 맡고 있는 'HS푸드'도

이전했다.

신사옥에 입주한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전문법인 하림산업은 이미 2016년부터 익산에 본사를 두고 하림지주 사옥 신축 뿐 아니라 하림그룹의 익산지역 식품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을 관리해왔으며, 서울 양재동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식품 물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이미 전북지역에 (주)하림, 하림식품 등 17개 계열사가 본사를 두고 있으며 55개 사업장에서 2,700여개의 직접 일자리와 협력사, 계약사육 농가 등 1,200여개의 간접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으며 계약사육농가들의 연평균 수익이 2억을 넘어섰고 있다.

이와 함께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Harim Food Triangle)이 완성되면 1,5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지게 된다.

전북 익산시 합영을 다송리 익산 제4산업단지에 신축 중인 공유주방 개념의 종합식품단지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4,00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9년말 완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2만709㎡(3만6,500평) 부지에 식품 가공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이 들어



익산에 건립한 하림 신사옥.

서게 되며,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700여개의 직접일자리 창출과 함께 협력업체 및 식품소재 분야의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림푸드 콤플렉스 조성과 더불어 인근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본사를 둔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은 최근 2,000여억원을 투자, 국내 최대 최첨단 도계 및 가공시설 증축공사를 마무리했다.

30여년 동안 국내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주)하림은 이번 스마트 팩토리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하림그룹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플러스타터에도 이미 5만

3,623㎡(1만6,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식품가공 플랜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Food & Agribusiness 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의 이 같은 신규 투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국가식품플러스타터, 새만금 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 식품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동북아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하림지주 신사옥은 농식품산업에 대한 하림그룹의 비전과 실행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청년들의 성공 창업을 응원합니다’

전북중기청, 예비창업자 모집...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예비창업패키지(구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원활한 창업 사업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창업 교육, 전담 멘토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총 1,700명의 청년예비창업자를 선발·육성하며 3월에 600명을 우선 선발하고 각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1,1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먼저,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류 질의응답 중심의 발표평가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창업기업들이 교류하고 협력

을 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들 간의 연결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관계부처 산하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사업을 통해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의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사업화비용의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 1차 모집은 기술보증기금 7개 본부(총 500명)와 한국여성벤처협회(100명)에서 진행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이나 주관기관에 문의 가능하며, 선정자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홍보 등에 쓰이는 창업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전담멘토가 창업활동 전반을 밀착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다양한 우대혜택 누리세요”

전북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대고객 감사 이벤트 안마의자·청소기·스타일러 등 풍성한 경품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대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JB가맹점통장, JB주거래 통장 이벤트 두 가지이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JB가맹점 통장 이벤트 대상 고객은 가맹점 통장 신규 후 해당 계좌를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 이벤트 기간 동안 매출대금 입금 누적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고객이며,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등 안마의자, 2등 영업용 청소기, 3등, 4등에게는 기프트상품권을 제공한다.

JB주거래 통장 이벤트 대상고객은 주거래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신규 고객으로, 급여이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50만원이상 2회 이상 이체고 고객과 연금수급은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20만원 이상 2회 이상 이체한 고객중 6월말 까지 정상계좌 유지한 고객에 한해 1등 스타일러, 2등 건조기, 3등, 4등에게 기



프트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두 가지 이벤트를 통해 총 667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많은 고객들이 JB가맹점통장, JB주거래통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는 당행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1588-44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한국 농어촌공, 신임 사장 김인식 전 농진청장 선임

한국농어촌공사 제10대 신임 사장에 김인식 전 농진청장이 선임됐다고 4일 밝혔다.



김인식 사장은 농민단체 시절 나눔자조금 정착을 통한 농축산자조금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마사회 및 축산물 가공업의 농림부 환원 등 굵직한 농, 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한편, 1992년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과 농, 어촌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 등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우리아이 최고’ 정기적금 특판 연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올해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난달 28일 종료된 ‘우리아이 최고’ 정기적금 특판 연장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정기적금 특판은 아동수당을 전북은행으로 수령한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0억원 한도(계약액 기준)내에서 판매 연장한다.

아동명의로의 1인 1계좌에 월 20만원 한도로 아동 연령에 따라 가입 가능

기간이 달라지며 금리는 최고 연 3.5%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목적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맞춰 정기적금 특판을 준비했다”며, “아동수당 수급자들은 가입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농협, 조합장 후보자 3명 등록 완료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전주농협에서도 후보자 3명이 최근 등록을 마쳤다.

전주농협 조합장 후보자는 김태영 농민회 농협 정책위원회(51), 주동현 전 전주농협 이사(63), 임인규 현 전

주농협 조합장(64) 등 총 3명이다. 김태영 후보는 전주 중년동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 전주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분쟁 조정위원회위원을 지내고 있다. 주동현 후보는 전주농협 대의원, 한



김태영

임인규

주동현

농연 전주시연합회 이사를 지냈다. 현역 조합장인 임인규 후보는 전주농협에서 경제상무, 지점장, 조경수 작목반장을 지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